



## 1. 영어식 표현인 ‘들’의 남용

사물을 복수로 만들 때 쓰이는 접미사 ‘~들’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야기 앞뒤의 흐름으로 복수임을 짐작할 수 있거나, 문장 속에 있는 다른 어휘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복수에 꼬박꼬박 ‘들’을 붙여 쓰는 것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먹자골목에는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다”를 예로 들면 ‘늘어서 있다’는 서술어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음식점’에 ‘들’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먹자골목에는 음식점이 늘어서 있다”는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 ※ 심화학습

####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들’을 붙이면 안 됨

영어식으로 복수를 나타내는 말에 ‘들’을 붙이는 데 익숙하다 보니 “상승하는 수증기들이 주변의 낮은 공기들 때문에 냉각되고 서서히 뭉치면서 구름들이 생긴다”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증기, 공기, 구름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애초에 ‘들’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상승하는 수증기가 주변의 낮은 공기 때문에 냉각되고 서서히 뭉치면서 구름이 생긴다”로 해야 합니다.

## 2. 영어식 표현인 ‘~중이다’ 남용

우리말에서는 영어처럼 특별히 진행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태나 진행을 뜻하는 ‘있다’가 ‘~고 있다’ 형태로 쓰여 진행형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체계를 무시하고 영어의 ‘~ing’를 공부하면서 배운 ‘~중이다’ 또는 ‘~하고 있는 중이다’가 마구 쓰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 중이다” “실질적 혜택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행사 참가를 고려 중이다” “실패 원인을 파악 중이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다리는 중이다” “그동안 써 놓은 글의 출판을 생각 중이다” 등과 같이 서술어가 ‘~중이다’ 투성이입니다.

## [13차시] 영어 또는 일본식 표현



‘계획 중이다→계획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검토하고 있다’ ‘추진 중이다→추진하고 있다’ ‘조사 중이다→조사하고 있다’ ‘고려 중이다→고려하고 있다’ ‘생각 중이다→생각하고 있다’ 등이 정상적인 우리말 표현 방식입니다.

### 3. 영어식 표현인 과거완료(했었어, 었었)의 남용

영어에서는 과거보다 이전 시점을 얘기할 때는 과거완료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했었’ 또는 ‘었었’ 형태의 과거완료를 사용하지 않고 부사어를 통해 적당히 표현하는 방식을 쓴다. “한때는 가출도 했었지만 점차 마음을 잡았고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있다”에서 ‘했었지만’은 영어식 과거완료형으로 우리말의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앞에 ‘한때는’이 있으므로 ‘한때는 가출도 했지만~’으로 충분한 표현입니다.

#### ※ 심화학습

#### 우리말에서의 ‘었었’ 형태

우리말에서 ‘었었’ 형태는 아주 예외적으로 쓰인다.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적었었다” “이번에 농구 선수로 활약한 저 선수는 왕년에 배구 선수였었다”와 같이 과거엔 그러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음을 나타낼 때는 예외적으로 ‘었었’ 형태를 씁니다.

### 4. 피동문

사물이 주어가 된 피동문은 영어식 표현으로,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은 영어를 배우면서 익숙해진 피동문을 마구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방송 분야에서 정책은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물인 ‘정책’을 주어로 한 피동문으로,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동문인 “정부는 방송 분야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 5. 일본식 표현 ‘~의’

‘~의’가 붙은 ‘나의, 너의, 저의’ 형태는 조선 후기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개화기에는 흔히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어에서 여러 가지 문장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조사 ‘の’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침실로’(이상화의 시), ‘나의 살던 고향’(이원수의 ‘고향의 봄’ 중) 등에서 ‘나의 침실’은 ‘내 침실’,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이 이전부터 내려온 우리말 어법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의’가 아무 데나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국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렸다”(→스스로 한 약속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야 한다”(→저마다 타고난 소질을~)처럼 ‘~의’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의 소비량이 부쩍 줄었다”에서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모두 ‘~의’를 사용했으나, 이는 일본어식으로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6. 일본식 표현인 ‘~에 있어’의 남용

‘~에 있어(서)’는 일본어 ‘니오이테(において)’를 흉내 낸 말로 우리말에서는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는 일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 열정적이다”처럼 ‘~에 있어(서)’를 마구 쓰고 있으나 우리말에서는 군더더기입니다. 없어도 되는 예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경우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예문은 ‘에 있어’를 없애고 “그는 일이나 사랑에 열정적이다”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